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2026년 6월 25일(목)

참석 위원	최은수 위원장, 김광석 부위원장, 이경화, 전계순, 김병수, 박세진, 임태순, 안호림 (8인)
회사 참석 인원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부장

1. 개회 및 신임 심의부장 소개

[최은수 위원장]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6월 정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시청자위원회 실무를 담당하실 신임 심의부장님께서 새로 인사 발령을 받아 오셨습니다. 간단히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의부장]

안녕하세요. 백길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은수 위원장]

환영합니다. 그럼 임태선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프로그램 심의 의견

[임태선 위원]

'무조건 간다 - 대학병원 교수 믿고 수술받았는데 무면허 의료' 보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현장의 문제를 깊이 있게 짚어낸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대학병원이라는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 수술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보도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공익 제보와 관계자 인터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해외 연수생의 의료 행위 범위, 지도 교수 입회 여부, 동시 수술 관행 등 일반 시청자에게 다

소 낮설 수 있는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비교적 쉽게 설명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의료법상 허용되는 연수 범위와 실제 수술 현장에서의 행위 사이의 차이, 환자 안전과 의료 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보도의 공익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병원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 외부 수사로 이어진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공익 제보의 중요성과 함께 대형 의료기관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내부 통제와 관리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청자들에게 환기시켰습니다.

환자는 수술실 내부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이 이러한 사안을 점검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보도는 대형 병원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안전 문제를 시의성 있게 제기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환자 보호라는 언론의 공적 역할을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보도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본부장]

'무조건 간다' 코너를 면밀히 살펴보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발성·탐사 성격의 프로그램을 늘려나가는 것이 저희 보도국의 큰 방향이기도 합니다. 올 가을쯤 기획팀을 보강하여 고발 프로그램을 더 심층적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최은수 위원장]

이 방향을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공익 제보'라는 타이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공익 제보는 좋은 뉴스 소스가 되고, 탐사 보도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 경찰 비리 등 사회 부조리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시청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간다'는 기자·PD가 취재의 주체가 되는 구조이지만, '공익 제보'는 시청자가 직접 사회 부조리를 알려오는 방식이어서 시청자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세진 위원님 부탁 드립니다.

[박세진 위원]

6.3 지방선거 보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패널 섭외의 균형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패널들의 발언이 다소 많았던 점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개표 방송 다음 날 아침,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야간 집계와 뒤집히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일부 패널이 아직 개표가 진행 중임에도 결과가 확정된 것처럼 발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앵커가 중간에 적절히 제지하여 다행이었으나,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합뉴스TV 홈페이지의 영상 재생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KBS는 1.5배속

·1.75배속 등 배속 기능을 제공하고, YTN은 아예 유튜브 창과 연계하여 광고 수익도 발생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홈페이지는 현재 10초 넘기기 정도의 기능만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부족합니다. 배속 재생 등 기능을 추가하거나, YTN처럼 유튜브 채널과 연동하는 방식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도본부장]

6.3 지방선거 보도와 관련하여, 새벽 5시 이후 갑자기 판세가 바뀌는 역대급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침에 매우 긴박하게 움직였고, 섭외해 둔 패널을 교체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패널들도 당황한 나머지 여러 해프닝이 있었는데, 중간에 쪽지를 넣어 보도 방향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선거 보도는 항상 철저히 준비하지만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법인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살펴 다음 선거 보도에서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영상 관련하여, 최근 데스크탑 버전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첫 화면이 새롭게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바일 버전도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속 재생 등 추가 기능도 참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호림 위원]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관련 보도입니다. 연합뉴스TV가 선거 당일 밤 11시가 넘는 시각에 팽팽한 대치 상황과 시민들의 항의, 선관위의 50% 미만 인쇄 지침이라는 정황을 현장에서 밀착 취재한 것은 뉴스 채널로서의 기동성과 저력을 증명한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다만 이후 후속 보도에서 현장의 열기를 심층 추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 보도로 흘러간 점이 아쉬웠습니다. 선관위의 행정 오류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규명하기보다는 재선거 여부 등 정치권의 정쟁을 부각하는 데 치우쳤습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어떻게 재발을 막을 것인가'입니다. 단순 중계식 정쟁 보도를 넘어 사태의 제도적 모순과 의혹의 본질을 파고드는 추적 보도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AI 범죄 관련 기획 보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진화하는 범죄 속도에 맞춰 사회 안전망과 국가 방어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주제가 충분히 중요하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한데 일회성 보도로 마무리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유형별로 나누어 여러 편에 걸쳐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생소한 기술 개념에 대한 시각적 설명이 부족하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라인, 초국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까지 다루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보도본부장]

선거 보도에 대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단순 공방식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새벽 3시 35분에 나간 속보로, 발생 직후의 팩트를 먼저 전달한 보도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후속 보도가 이어진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유념하여 향후 선거 보도에 반영하겠습니다.

AI 범죄 기획 보도의 경우, 해당 기사 이후 총 4편의 후속 시리즈가 2주에 걸쳐 방영되었습니다. 일회성 보도가 아닌 심층 시리즈로 다루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AI 코너 신설을 제안하셨는데, 이란 전쟁 등으로 미루어 오다가 다음 주부터 AI 코너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주 한 번 AI 관련 기사를 집중 배치하는 코너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은수 위원장]

AI 코너 신설과 관련하여, 연합뉴스TV만의 키워드를 선정하고 장기적으로 그것을 회사의 아이덴티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의 보도로는 시청자 인식에 남지 않으므로 1~2년간 꾸준히 다루어야 합니다. MBN이 경제 뉴스로 강한 인식을 갖게 된 것처럼, 연합뉴스TV도 특정 분야에서 '이건 이 채널'이라는 인식이 쌓이도록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점성 있는 현장 영상을 확보하면 다른 언론사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때 '연합뉴스TV 제공'이라는 크레딧을 반드시 달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영상 콘텐츠 확보 전략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프리즘 '폭염 대비' 관련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온열 환자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올여름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폭염 대비책 마련의 시급성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폭염에 가장 취약한 독거노인과 택배기사, 건설 현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응책의 부재를 부각한 점은 적절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냉방 침구, 보양식 할인 행사 등 유통업체의 폭염 마케팅 전략을 함께 다룬 것은 프로그램의 방향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마케팅 내용보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방안, 온열 환자 응급 처치 요령 등 폭염 사고 예방 정보를 함께 다루었다면 프로그램 제목과도 더 잘 맞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월드컵 열기는 예전과 달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가 오전 시간대에 배정되면서 응원 특수가 사라진 점,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도 이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점, 중계권 독점으로 인한 불편적 시청권 침해 문제 등 월드컵 열기 감소 원인을 지적한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을 2002 한일 월드컵과 비교한 것은 개최국 효과라는 특수성을 간과한

것으로, 다소 무리한 비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감독 선임 논란 등 독단적인 축구협회 운영이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렸다는 평가도 적지 않은데, 이 점이 다루어졌다면 더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도본부장]

뉴스프리즘 폭염 관련 보도에서 기업 마케팅보다 정부·지자체 대응에 더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콘텐츠의 흥미를 위해 기업들의 다양한 대응 사례도 포함시킨 측면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열기 관련 보도는 마침 오늘 전임 스포츠문화부장이신 심의부장님이 참석하셨으니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심의부장]

2002 한일 월드컵과 비교한 것은 저도 무리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해당 기사를 제작한 기자들이 그 열기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서는, 월드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반드시 심층 취재를 통해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순 위원]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인기 간식 20종인 마라맛 간식류 10종, 캔디류·혼합음료 10종(제조국:중국) 수입 간식류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마라맛 간식 제품에서 세균 발육이 확인돼 위생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제품들은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입 마라 간식과 젤리류 일부 제품으로 위생 부적합과 치아 손상이 우려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향라웨이 설곤약'으로, 소비자원은 판매 중단과 환불 조치를 권고했으며 일부 동결건조 젤리는 지나치게 단단해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치아 파절이나 턱관절 손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SMR바삭 지구모양 동결젤리'의 최대 경도는 어린이 평균 저작력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마라맛 간식은 나트륨 함량도 높아서 일부 제품은 두 개만 먹어도 어린이 하루 나트륨 충분섭취량에 도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젤리와 캔디류는 당류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꾸덕젤리 블루베리향'은 한 개당 당류가 55그램으로, 어린이 하루 첨가당 권장량을 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단단한 젤리를 무리하게 깨물지 않도록 주의하고, 당류와 나트륨 함량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들어 무인판매점(아이스크림, 과자류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계당국인 식약처에서도 안전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안전한 어린이 간식 섭취를 위해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시의적절한 보도였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를 위하여 특히, 안전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간식으로 어린이들을 현혹하는 신유형 수입 간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전반에 안전한 어린이 식품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본부장]

자세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주신 의견을 잘 참고하여 앞으로 보도에 더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박세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홈페이지 사용자 편의성과 같은 맥락의 의견입니다.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라이브를 클릭하였더니, 2019년 기사가 노출되었습니다. 실시간 기사 화면에서 과거 기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시청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현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하시니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다를 인터뷰 - 애들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서, 엄마 손이 큰 이유' 기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기사는 순천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부 행위를 인터뷰한 내용으로, 기부자의 선행 확산, 도시락 수혜자들의 감사 편지, 자녀에게 기부 습관을 물려주는 모습 등을 담은 훈훈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기부 관련 현장에서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기부자의 의도가 지나치게 드러나거나 정치적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혜자들이 기부받는 사실을 오히려 숨기고 싶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부자의 심리적 보람과 어려움, 수혜자가 겪는 심리적 불편함까지 함께 조명하여,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도본부장]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라이브' 등의 키워드 때문에 과거 영상이 혼재되어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해당 영상들은 모두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측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기부 관련 인터뷰에 대해서는, 기부자 본인이 얼굴 노출을 원하지 않아 등을 보이고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부자와 수혜자 양측의 심리와 기부 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담을 수 있도록 보도 방식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광석 부위원장]

연합뉴스TV 스페셜 430회 '그들의 흔적, 모두의 역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부친께서 월남전 참전 용사이셔서 유족의 심정으로 매우 의미 깊게 시청하였습니다. 6월 보훈의 달에 매우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경남 남해라는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호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어낸 점이 돋보였습니다. 대부분의 호국 다큐멘터리가 6.25 전쟁이나 월남전 등 특정 현대사에 한정되는 데 비해, 이 프로그램은 남해를 축으로 고려시대 대몽항쟁부터 임진왜란의 마지막 격전지인 노량 해전, 6.25, 월남전까지 역사의 흐름을 한 줄기로 연결하여 남해가 지닌 역사적 무게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국가적 전쟁으로 시작하여 6.25·월남전 흔적 전시관이라는 개인들의 역사로 좁혀가는 구성도 좋았습니다. 국가가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참전 용사의 개인 유품, 빛바랜 사진, 청춘의 흔적들을 조명함으로써 시청자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이웃과 가족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전시관이 오늘날 아이들의 보훈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과거의 희생이 현재의 자유로 이어지고 미래 세대로 전달된다는 메시지를 시각적·감정적으로 잘 표현하였습니다.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려 대몽항쟁·임진왜란에서 6.25·월남전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다소 급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분량 제한상 모든 것을 담기 어렵겠지만, 조선시대와 6.25 전쟁 사이의 시간적 공백을 남해 지역 사람들의 호국 정신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1~2분의 브리지 나레이션으로 채워 주었다면 시대적 흐름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둘째, 방송 마지막에 흔적 전시관을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 소개하며 '호국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정작 이 전시관이 남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일반인이 어떻게 방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감동을 받은 시청자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익적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사라질 뻔했던 개인의 기억을 모두의 역사로 승화시킨 기획 의도가 명확하고 연출도 적절하였습니다. 어려운 제작 환경 속에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주신 제작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도본부장]

스페셜 제작물을 이렇게 자세하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D들이 어려운 제작 환경 속에서 한 달에 한두 편을 만들어 내는 만큼, 이렇게 발굴하여 격려해 주시니 큰 힘이 됩니다. 전환점의 이음새가 다소 끊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 PD 본인도 현대사와 과거사를 연결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완성도 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남해라는 지역을 호국의 서사로 풀어낸 시도 자체는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수 위원장]

시청자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경청하고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지적드린 구글 검색 링크 오류도 이번에 확인해 보니 깔끔하게 해결되어 있어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가지 의견을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 기사들을 살펴보니 협회·정책 기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 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방송 특성상 보도 자료만으로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온라인 시대에는 방송에 나가지 않더라도 콘텐츠가 온라인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코스피 상장 기업이 약 900개, 코스닥 상장 기업이 약 1,800개로 총 2,700개에 달합니다. 이들 기업 관련 기사를 늘리고 홈페이지에서 잘 보이도록 노출 방식을 개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도본부장]

위원장님 지적대로 홈페이지 경제 파트에 협회·관급 기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관급 기사는 주로 텍스트 기사로 출입처 관리 차원에서 게재하는 것이며, 방송 기사 중에는 기업 기사 비중이 높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밀려나 잘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에 '비즈앤' 코너를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일 저녁 5시쯤 기업 기사 5건을 묶어 한 번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란 전쟁 이후 인력 부족으로 잠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도 별도의 '비즈앤' 코너를 신설하여 기업 기사가 눈에 잘 띄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급 텍스트 기사를 줄이고 기업 기사 노출을 높이는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정비하겠습니다.

3. 폐회

이것으로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6월 정례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